

## 《校注婦人良方》에 수록된 의무기록(醫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학교실  
오창영, 김나영, 박영수, 김병희, 조호근, 김종오, 김동일

### ABSTRACT

#### A Study about medical records in 「*Gyojubuin-yangbang*」

Chang-Young Oh, Ra-Young Kim, Young-Soo Park, Byoung-Hoe Kim,  
Ho-Geun Joh, Joong-Oh Kim, Dong-Il Kim  
Dept. of Ob&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Background** : Medical records are documents in files which consist of all diagnostic studies and medical treatments patients had received while they were hospitalized or treated as outpatients. A doctor or medical team can use medical records as a data for diagnosis, treatment, and education.

In traditional eastern asian medicine, medical reports have different forms and content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medical reports of traditional eastern asian medicine was how to express practitioner's medical ideas. So it has a weak point, for example, it has poor information about patient and clinical process, which make some trouble to understand it.

**Methods and Results** : We studied medical records in *Gyojubuin-yangbang*, a commentary book of *Chen-zi-ming's* Obstetrics and Gynecology textbook done by *Xue-ji* in *Ming* dynasty, China. This book consists of 10 parts; treatment of menstruation disorders and leukorrhea, general gynecology, treatment of infertility, education for fetus, diagnosis of fetus and gravida, treatment of general and obstetrical disease in gravida, care for delivery, postpartum care and treatment, and treatment of mass and inflammation. It has 546 medical records about women's disease that commonly believed as *Xue-ji's* case reports. They are all review articles and made during about 23 years from A.D 1523 to 1546. Most patients of *Xue-ji's* case reports were common people, this fact is different from that of case reports in *Chen-zi-ming's* Obstetrics and Gynecology textbook.

**Conclusion** : *Xue-ji* was a very famous Ob&Gy doctor who was from *Suzhou Jingsu* province in China. He was born in A.D 1468, died in A.D 1588. He emphasize emotional factors in pathology and to tonify spleen and kidney.

We think *Xue-ji's* medical records are good references for us to treat psychosomatic Ob&Gy disease and chronic women's disease.

## I. 緒 論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모든 사항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각종 검사 및 치료의 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이다. 의무기록은 환자에게 일관성 있는 진료를 제공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의료인 상호간의 의사소통수단이 되고 연구와 교육을 위한 자료가 된다. 또 각종 법률적 분쟁 상황에서 증거자료가 되며, 병원 행정 및 국가 보건행정의 기초 통계자료가 되기도 한다. 의무기록을 할 때는 환자의 인적 사항, 병력, 질병상태, 진단 및 치료결과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또 모든 기록에는 기록 날짜와 기록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sup>1)</sup>.

이러한 의무기록과 비견되는 것으로 한의학에는 醫案이 있다. 이것은 病案, 脈案, 診籍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sup>2)</sup>. 醫案의 주요 내용은 病狀·辨證·立法·處方·用藥 및 기타 일반적인 환자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 등이다. 현존하는 最古의 醫案으로는 《史記》에 남아 있는 淳于意의 診籍 25례가 있다. 그런데 현존하는 醫案들의 기록은 비교적 간결하여 病症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임상경과 등 症例의 全貌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黃<sup>3)</sup>은 醫案이 임상과정을 기록한 것이긴 하나 구체적 자료를 남기는 것보다는 임상에서 일어난 思惟에 따라 理·法·方·藥의 反映形式을 담는 것에 치중하였기 때문으로 인식하였다.

의학저작 속에 散見해 있는 醫案도 있지만 이러한 醫案만을 전문적으로 담은 대형 醫案著作도 있는데, 葉天士의 《臨

證指南醫案》이 대표적이다. 그밖에 徐靈胎의 《洄溪醫案》 및 王孟英의 《王氏醫案》 등이 유명하다<sup>2)</sup>. 이러한 醫案著作들은 대부분 清代에 이루어진 것이 많다. 그런데 부인과와 관련한 明代의 醫案은 《校注婦人良方》에 비교적 풍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학술적 임상적 가치가 높다.

《校注婦人良方》은 원래 南宋代의 陳子明이 지은 《婦人大全良方》을 서기 1529년에 薛己가 校注하고 상당 부분의 처방을 정리한 후 자신의 醫案을 附入하여 엮은 책으로 1547년(嘉正 26년, 61세)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인과 전문서적이다<sup>3,4,5,6)</sup>. 그리하여 調經·衆疾·求嗣·胎教·娠娠·坐月·産難·産後 등 8門으로 구성되어 있는 《婦人大全良方》과 달리 이 책은 調經·衆疾·求嗣·胎教·候胎·娠娠疾病·坐月·産難·産後·瘡瘍 등 10門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재편집된 《校注婦人良方》은 《婦人大全良方》의 기본 편제를 따르고 주요 이론을 인용하면서 李杲와 같은 金元四大家의 이론 등을 덧붙였을 뿐만 아니라 明代에 활용되던 처방과 자신의 이론 및 醫案을 附入하는 등 실용성을 높여 광범위한 流布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 책은 국내에서도 卞<sup>7)</sup>에 의해 번역이 이루어졌으나 收載 醫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나 임상적 응용에 대한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저자는 《校注婦人良方》의 醫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대적 이해와 응용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논문으로 보고하게 되었다.

## II. 本 論

### I. 『調經門』의 내용과 주요 醫案

『調經門』은 月經不調, 月水不通, 經閉成癆, 月水行止腹痛, 月水不斷, 殺血心痛, 帶下, 白濁과 白淫, 天癸過期, 血分과 水分 등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현대적으로 무월경, 비정상자궁출혈, 월경이상과 동반된 기능성 부종 등의 월경병, 갱년기증후군, 대하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調經門』에는 총 43개의 醫案이 있으며, 대부분 회고적 醫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醫案에 나타난 주된 病機 認識은 정신적 자극에 의한 肝脾損傷, 肺脾損傷 등에 주목하여 疎肝과 補氣(補脾氣 및 補肺氣)를 위주로 하여 치료하고 있다. 逍遙散 및 加味逍遙散, 歸脾湯, 補中益氣湯, 六君子湯, 六味地黃湯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병후 조리에서 脾胃를 건전하게 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東垣의 치료이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薛己의 調經 學說이론은 《內經》과 李東垣의 이론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李東垣의 調經理論의 특징은 《素問·陰陽別論》의 “二陽之病發心脾, 有不得隱曲, 女子不月.”의 이론을 脾胃를 중심으로 심화시킨 것이다. 여기서 二陽은 手陽明大腸과 足陽明胃로 胃主津하며, 大腸主液하고, 脾胃는 또한 氣血生化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월경 역시 脾胃의 기능에 따라 생리 혹은 병리적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러한 脾胃 중심의 이론은 薛己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이 증례는 그런 영향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薛己는 飲食不節, 勞役過度 및 情志刺戟이 脾胃病을 일으킨다는 東垣의 인식에 더하여 “命門火衰, 不能生土, 土虛寒使之然也.” 라고 하여 命門火衰도 脾胃病의 원인이 된다는 것으로 이론적 확충을 이룬 점에 차이가 있다.

전형적인 의안 1례를 소개하면, “一婦人, 月事未期而至, 發熱自汗. 或用清熱止汗之劑, 作渴頭眩, 手掉身麻. 余曰, 此肝經血虛火動, 火爲陽, 陽盛則生風. 用柴胡·炒芩·連·山梔·歸·芍·生地·丹皮各一錢, 蔘·芪·苓·朮各一錢, 川芎七分, 甘草五分. 二劑汗止, 更用補中益氣而癒.(어떤 부인이 나올 주기가 아닌데 월경이 나오고 열이 나며 헛땀이 났다. 누군가 열을 맑게 하고 땀을 멎게 하는 약을 쓰자 갈증이 나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손이 떨리고 몸이 뻣뻣해졌다. 내가 ‘이것은 肝經의 血이 허약하여 火가 동한 것으로 화는 陽이며, 양이 盛하여 風을 생성한 것입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시호 황금 볶은 것 황련 산치자 당귀 천궁 생지황 목단피 각 한돈, 인삼 황기 복령 백출 각 한돈, 천궁 일곱푼, 감초 다섯푼을 썼다. 두 제를 복용하자 땀이 멎고 다시 보중익기탕을 사용하자 나았다.”고 하였다. 이는 血虛하여 生風 火動한 것에 의한 월경불규칙과 경련에 대한 의안이다. 肝經의 血熱을 제거하는 약물과 脾胃를 補하는 약물로 먼저 病因을 제거한 다음 補中益氣湯으로 치료한 것이다.

한편, 帶下의 치료에 있어서 補中益氣湯 濟生歸脾湯의 두 가지 약물로 치료한 증례가 있는데, 이것은 帶下의 病機를 脾臟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帶下에 대한 補脾

의 치료 원칙은 東垣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후대에도 계속 계승되어 후대 《傳青主女科》의 完帶湯 관련부분에서 더욱 완비된 이론과 처방을 볼 수 있게 된다<sup>8)</sup>. 주요 관련 醫案을 보면, “一婦人, 吞酸飽滿, 食少便泄, 月經不調. 服清氣化痰丸, 兩膝漸腫, 寒熱往來, 帶下黃白, 面痿體倦. 此脾胃俱虛, 濕痰下注, 用補中益氣, 倍用參·朮, 加茯苓·半夏·炮薑而癒.(어떤 부인이 신물을 삼키고 배가 불러 그득하고 음식을 적게 먹으며 대변은 설사를 하였으며 월경이 고르지 않았다. 清氣化痰丸을 복용하자 양쪽 무릎이 차츰 부었고 오한과 발열이 왕래하였으며 대하는 누렇고 흰색이 있으며 얼굴이 수척하고 몸이 피곤하였다. 이것은 비위가 모두 허약하여 濕과 痰이 아래로 흘러내린 것이어서 補中益氣湯에 인삼과 백출을 곱절로 늘리고 복령·반하·통계로 구운 건강을 가미하여 썼더니 나왔다.”고 하였다. 이 醫案 역시 대하를 痰으로 보고 誤治한 증례에 대해 脾虛를 중시한 관점에서 補中益氣湯을 기본방으로 하면서 燥濕化痰하는 약물을 가미하여 치료한 것이다.

## II. 『衆疾門』의 내용과 주요 醫案

『衆疾門』은 卷二에서 卷八까지이며 94개의 방론 중 80개의 방론에서 209개의 醫案을 수재하고 있다. 卷二는 서론적 성격으로 《婦人大全良》<sup>9)</sup>과 거의 같은 편제로 產寶方論, 博濟方論, 寇宗奭論 및 通用方序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卷三부터 醫案이 수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中風을 비롯하여 여러 경련과 마비를 일으키는 병증에 대해 다루

고 있다. 卷四에는 신체의 동통, 가려움, 어지러움, 두통 등 일반적인 雜病을 다루고 있다. 卷五에는 오늘날의 결핵의 범주로 인식할 수 있는 전염성 소모성 질환군에 대한 醫案을 다루고 있다. 卷六은 發熱, 惡寒, 咳嗽, 嘈雜 등의 증상을 다루고 있다. 卷七에는 嘔吐, 霍亂, 비출혈, 토혈, 복부의 종괴성 질환, 복통 등을 다루고 있다. 卷八에서는 소변과 대변의 이상 및 이를 유발하는 질환, 외음 및 성관계에 수반되는 이상 등을 다루고 있다.

전형적인 의안과 관련하여 寡婦寒熱如瘡方論第四에는 “一寡婦, 不時寒熱, 脈上魚際, 此血盛之症, 用小柴胡湯加生地黃治之而癒. 但畏風寒, 此脾胃氣虛, 用加味歸脾·補中益氣二湯兼服而止.(어떤 미망인이 갑자기 오한이 들고 열이 나며 맥이 魚際부분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은 혈이 盛한 증상이어서 小柴胡湯에 생지황을 가미하여 치료하여 나왔다. 그런데 단지 바람과 한기를 싫어하였는데, 이것은 脾胃의 氣가 허한 것이어서 加味歸脾湯과 補中益氣湯 두 탕약을 겸복하였더니 증상이 멎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미망인에 대한 임상적 어려움이나 심신상의 특성은 《褚氏遺書》<sup>10)</sup>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래 《婦人大全良方》에서 이를 강조하였고, 薛己의 醫案에서도 중시하고 있다.

婦人熱入血室方論第十에서는 婦人熱入血室과 관련된 의안으로서 “一婦人經行, 感冒風邪, 晝則安靜, 夜則譫語, 此熱入血室也. 用小柴胡加生地黃治之, 頓安; 但內熱頭暈, 用補中益氣加蔓荊子而癒. 後因怒惱, 寒熱譫語, 胸腹脹痛, 小便頻數, 月經先期, 此肝火血熱妄行. 用加味逍遙加

生地黃而愈.(어떤 부인이 월경을 할 때 풍사에 감촉되어 낮에는 증상이 없었지만 밤이 되면 헛소리를 하였는데, 이것은 열입혈실증이였다. 그래서 小柴胡湯에 생지황을 가미하여 치료하였더니 곧 편안해졌다. 그런데 단지 내열이 있고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 補中益氣湯에 만형자를 가미하여 치료하였더니 나왔다. 나중에 화를 내고 피로워하는 바람에 오한이 들고 열이 나며 헛소리를 하고 가슴과 배가 부르고 아팠으며 소변이 잦고 월경주기가 당겨졌다. 이것은 간화로 인해 피가 뜨거워져 불규칙하게 나오게 된 것이였다. 그래서 加味逍遙散에 생지황을 가미하여 썼더니 나왔다.)"고 하였다. 이것은 熱入血室症을 小柴胡湯에 生地黃을 가미하여 치료한 다음 內熱과 頭暈을 補中益氣湯加 蔓荊子로 치료한 증례이다.

婦人陰腫方論第十六에서 수재한 관련 의안으로는 "一婦人陰中腫悶, 小便澁滯, 兩脇作腫, 內熱晡熱, 月經不調, 時或寒熱, 此因肝脾鬱怒, 元氣下陷, 濕熱壅滯. 朝用歸脾湯加柴胡·升麻, 解鬱結·補脾氣·升元氣; 夕用加味逍遙散, 清肝火·生肝血·除濕熱. 各數劑, 諸症悉愈. 又用四君·芎·歸·丹皮, 調補肝脾而經水如期.(어떤 부인이 음부 안이 붓고 갑갑하게 느껴지며 소변이 개운하게 나오지 않고 양쪽 옆구리가 붓고 내열이 있으며 해질 녘에 열이 나고 월경이 고르지 않고 때때로 오한과 발열이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간과 비의 울체된 怒氣가 있고 원기가 아래로 내려앉으며 濕熱이 막혀 정체된 것이였다. 아침에는 歸脾湯에 시호와 승마를 가미하여 울체되고 맺힌 것을 풀며 脾氣를 보하고 원기를

끌어올렸으며, 저녁에는 加味逍遙散을 써서 간화를 맑게 하고 肝血을 생성시키며 濕熱을 제거하였다. 각각을 몇 제 쓰자 모든 증상이 다 나왔다. 다시 四君子湯과 천궁·당귀·목단피를 써서 간과 비를 고르게 보하자 월경이 정상적인 주기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한 것이 있다.

婦人陰痒方論第十七에서 수재한 관련 의안으로는 "一婦人胸膈不利, 內熱作渴, 飲食不甘, 肢體倦怠, 陰中悶痒, 小便赤澁, 此鬱怒傷脾肝所致. 用歸脾湯加山梔而愈. 復因怒, 患處并小腹痛, 用小柴胡加山梔·芎·歸·芍藥, 痛止, 用逍遙散加山梔而愈. 又因勞役, 患處腫脹, 小便仍澁, 用補中益氣加山梔·茯苓·丹皮而安.(어떤 부인이 가슴과 횡격막 부분이 편하지 않고 내열이 있어 갈증이 나며 입맛이 없고 사지와 몸이 피곤하고 음부의 내부가 답답하고 가려우며 소변이 붉고 갈갈하였는데, 이것은 울체된 분노로 비와 간이 손상된 때문이였다. 歸脾湯에 산치자를 가미하여 썼더니 나왔다. 나중에 화를 내어 환부와 아랫배가 부르면서 아파 小柴胡湯에 산치자·천궁·당귀·작약을 가미하여 썼더니 통증이 멎었고, 逍遙散에 산치자를 가미하여 썼더니 나왔다. 그런데 다시 과로로 인해 환부가 붓고 소변도 갈갈하여 補中益氣湯에 산치자·복령·목단피를 가미하여 썼더니 편안해졌다.)"고 한 것이 있다. 이는 신체적 과로와 억압된 정서적 요인에 의한 음부 소양증을 歸脾湯加味方 등과 補中益氣湯加味方으로 치료한 醫案이다.

婦人陰冷方論第十八에서 수재한 관련 의안으로는 "一婦人陰中寒冷, 小便黃澁,

內熱寒熱, 口苦脇脹, 此因肝經濕熱. 用龍膽湯祛利濕熱, 用加味逍遙散調血氣而安. (어떤 부인이 음부 안이 차갑고 소변이 노란색이면서 개운하게 잘 나오지 않으며 내열이 있고 오한과 발열이 있으며 입이 쓰고 옆구리가 붙었는데, 이것은 肝經의 濕熱에 의한 것이었다. 龍膽湯을 써서 습열이 잘 나가게 하고 加味逍遙散을 써서 혈과 기를 고르게 하여 편안해졌다.)"고 한 것이 있다.

婦人陰挺下脫方論第十九에서 수재한 관련 의안으로는 “一婦人陰中突出如菌, 四圍腫痛, 小便頻數, 內熱晡熱, 似痒似痛, 小便重墮, 此肝脾鬱結. 蓋肝火濕熱而腫痛, 脾虛下陷而重墮也. 先以補中益氣加山梔·茯苓·車前子·青皮以清肝火升脾氣, 更以加味歸脾湯調理脾鬱. 外以生豬脂和藜蘆末, 塗之而收.(어떤 부인이 음부가 버섯처럼 돌출되고 사방이 붓고 아팠으며 소변이 잦고 내열이 있으며 해질 녘에 열이 나고 가려운 듯하기도 하고 아픈 듯하기도 하였으며 소변을 볼 때 목직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것은 간과 비가 울체되어 맺힌 것이었다. 대체로 肝火濕熱로 붓고 아프며, 脾虛하여 아래로 꺼져서 무겁게 내려앉는 것이었다. 먼저 補中益氣湯에 산치자·복령·차전자·청피를 가미하여 간화를 맑게 하고 비기를 끌어올리며, 다시 加味歸脾湯으로 비의 울체를 조리하였다. 또 외용요법으로 익히지 않은 돼지기름으로 여로의 분말을 개어서 발랐더니 수렴되었다.)"고 하고 있다.

婦人陰中生瘡方論第二十에서 수재한 관련 의안으로는 “一婦人潰腐, 膿水淋漓, 腫痛寒熱, 小便赤澁, 內熱作渴, 肢體倦怠, 胸脇不利, 飲食少思. 余以爲肝脾虧

損, 用補中益氣, 內柴胡·升麻各用一錢, 加茯苓一錢, 山梔二錢, 數劑少愈. 又與歸脾湯加山梔·川芎·茯苓, 三十餘劑, 諸症悉退. 惟內熱尚在, 再與逍遙散, 倍用山梔而愈.(어떤 부인이 음부가 헐고 썩어 고름이 방울져 나오고 붓고 아파 오한이 들고 열이 나며 소변이 붉고 개운하게 나오지 않으며 내열이 있어 갈증이 나고 사지와 몸이 피곤하고 가슴과 옆구리가 개운하지 못하며 식욕이 적었다. 내가 간과 비가 이지러지고 손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補中益氣湯을 썼는데, 구성 약물 중의 시호와 승마는 각 1돈으로 쓰고 복령 1돈과 산치자 2돈을 가미하여 몇 제 썼더니 조금 나왔다. 다시 歸脾湯에 산치자·천궁·복령을 가미하여 30여 제를 썼더니 모든 증상이 다 없어졌다. 그런데 내열만은 오히려 남아 있어서 다시 逍遙散을 투여하였는데, 산치자를 곱절로 하여 썼더니 나왔다.)"고 하고 있다.

### III. 『求嗣門』의 내용과 주요 醫案

『求嗣門』은 陳無擇求子論, 褚尙書澄求男論, 無子論, 《千金翼》求子方論 등 求男을 위한 醫論을 중심으로 한 내용과 구체적인 성생활의 지침을 다룬 交會禁忌, 男女受胎時日法, 推支干王相時日法, 推每月宿日이 있으며, 求嗣의 약물을 다룬 求子服藥須知와 求嗣의 哲學的 側面을 다룬 溫隱居求嗣保生篇方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醫案은 陳無擇求子論에서 간략하게 “어떤 병이 있었는데, 치료한 뒤 자식을 낳았다.” 라는 방식의 짧은 醫案이 7개 실려 있을 뿐이다. 전형적인 것을 예거하면, “一婦人月經淋

瀝, 愈而生子. 見一卷月水不斷.(어떤 부인이 월경이 조금씩 방울져 새어 나왔었는데 나아가 자식을 낳았다. 제 1권 월경이 그치지 않는 것에 보임.)와 같다. 이는 배란장애로 비정상자궁출혈과 불임을 나타내었던 부인에 대한 증례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求嗣門』은 다른 門에 비해 임상적 병증을 다룬 부분은 없고, 구체적 治法이나 治方 및 求嗣의 醫案도 적으며, 철학적이거나 섭생의 원리를 다룬 것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한 불임과 각종 질환에 의한 불임의 가능성을 고루 언급하면서 求嗣라는 행위가 생명과 관계되는 신비스러운 활동이며, 미지의 분야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인질환에 대한 치료가 不妊의 治療이며, 불임치료 이전에 調經이 선행됨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治法의 적용에 있어서는 丹溪의 이론을 인용하면서 進一步한 辨證論治 정신을 부각하고 남녀를 모두 진찰할 것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IV. 『胎教門』과 『候胎門』의 내용

卷十의 『胎教門』과 卷十一의 『候胎門』은 《婦人大全良方》의 내용을 거의 답습하고 있으며 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상 이론적 측면이 강하고 수재하고 있는 醫案은 없다. 卷十의 『胎教門』은 妊娠總論, 受形論, 受形篇, 論胎教, 孕元立本章, 擬形殊稟章, 氣質生成章, 轉女爲男法으로 구성되어 있고, 卷十一의 『候胎門』은 脈例, 診婦人有妊歌,

驗胎法, 胎教避忌產前將護法, 食忌論, 孕婦藥忌歌으로 구성되어 있다.

#### V. 『妊娠疾病門』의 내용과 주요 醫案

『妊娠疾病門』은 第 12卷부터 第 15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각종 임신 중 질환과 관련된 52개의 醫案이 수재되어 있다. 방론에 제시된 부분 중 醫案이 수재되지 않은 것은 『妊娠隨月數服藥及將息法』, 『妊娠驚胎及僵仆方論』, 『妊娠誤服毒藥胎動方』, 『妊娠中惡方論』, 『妊娠中風方論』, 『妊娠傷寒方論』, 『妊娠時期方論』, 『妊娠熱病方論』, 『妊娠傷寒熱病防損胎方論』, 『妊娠熱病胎死腹中方論』, 『妊娠腹內鍾鳴方論』, 『妊娠不語論』 등 13편으로 전체 50편 중 총론적인 1편을 제외한 49편의 26.5%에 해당되는 부분에 醫案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임신부의 다양한 증상들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의 축적이 부족하였을 가능성을 유추하게 한다.

妊娠 惡阻와 관련된 醫案으로는 妊娠 惡阻方論第二에서 “一妊婦嘔吐惡食, 體倦嗜臥, 此胃氣虛而惡阻也. 用人蔘橘皮湯二劑漸愈, 又用六君子加紫蘇二劑而安.(어떤 임신부가 토하고 음식을 먹기 싫어하며 몸이 피곤하여 자꾸 누워있고 싶었는데, 이것은 胃氣가 虛하고 惡阻症이 생긴 것이었다. 그래서 人蔘橘皮湯 2제를 썼더니 차츰 나왔다.)”고 하고 있다. 惡阻 관련 醫案들은 脾氣를 補强하고 건전하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처방의 근간을 형성하면서 해울의 효능이 있는 蘇梗과 地殼 등의 약물, 祛痰止嘔의 효능이 뚜렷한 半夏를 적절히 加味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胎動 胎漏와 관련된 醫案으로는 妊娠

漏胎下血方論第五에서 “一妊婦下血，服涼血止血藥，下血益甚，食少體倦。此脾氣虛而不能攝血。余用補中益氣湯而愈。後因怒而寒熱，其血仍下。此肝木旺而血沸騰用加味逍遙散血止，用補中益氣湯而安。(어떤 임신부가 하혈을 하여 피를 서늘하게 하여 멎게 하는 약을 복용하였더니 하혈하는 것이 더욱 심해졌고 음식을 적게 먹으며 몸이 피곤하였다. 이것은脾氣가 虛하여 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補中益氣湯을 썼더니 나왔다. 그런데 나중에 화를 낸 탓에 오한이 들고 열이 나며 이로 인해 다시 피가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肝木이 왕성하여 피가 끓어오른 것이어서 加味逍遙散을 쓰자 피가 멎었고, 補中益氣湯을 쓰자 편안해졌다.)”고 하고 있다. 이 醫案은 임신 중의 胎漏症을 脾虛에 의한 것으로 보고 補中益氣湯으로 치료하였으며, 화를 내는 것과 같은 정서적 문제에 의한 재발을 加味逍遙散으로 標治하고 다시 補中益氣湯으로 조리한 증례이다. 이것은 질락유산에 대한 임상에 참조할 수 있다. 다만 壽胎丸(張錫純. 醫學衷中參書錄·女科方：兔絲子 阿膠 桑寄生 續斷)을 활용하는 것과 같은 補腎을 통한 安胎法의 언급이 薛己의 按과 醫案에서는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胎水腫滿에 관련된 醫案으로는 妊娠胎水腫滿方論第八에서 “一妊婦每胎至五月，肢體倦怠，飲食無味，先兩足腫，漸至遍身，後及頭面，此是脾肺氣虛。朝用補中益氣，夕用六君子加蘇梗而癒。凡治妊娠，毋泥月數，但見某經症，即用本藥爲善。(어떤 임신부가 임신하였을 때마다 5개월이 되면 사지와 몸이 피곤하고 음식 맛을

못 느끼며 먼저 양쪽 발이 붓고 점차 온몸으로 퍼지고 나중에는 머리와 얼굴까지 과급되었는데, 이것은 脾와 肺의 氣가 虛한 것이었다. 아침에는 補中益氣湯을 쓰고, 저녁에는 六君子湯에 蘇梗을 加味하여 썼더니 나왔다. 임신 중의 질병을 치료할 때는 임신 개월 수에 구애받지 말고 단지 어떤 경락의 병증인지 살펴서 이 약을 쓰면 좋다.”고 하고 있다. 이 醫案은 아침과 저녁으로 처방을 달리 적용하는 薛己의 용약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임신 중의 부종을 運化를 담당하는 脾를 건전하게 하고, 水의 上源인 肺의 氣를 보강할 수 있도록 補中益氣湯을 쓰고, 다시 六君子湯에 行氣시키는 蘇梗을 加味하여 쓴 것이다.

#### VI. 『坐月門』과 『産難門』의 내용과 주요 醫案

『坐月門』은 卷十六에 해당되며, 『《産寶方》周頌序』, 『將護孕婦論』, 『滑胎例』, 『月空方位例』, 『逐月安産藏衣忌向方位』, 『推婦人行年法』, 『體女子借地法』, 『禁草法』, 『禁水法』, 『入月預備藥物』, 『催生靈符』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婦人大全良方》의 수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수재된 醫案은 없다.

産難門은 卷十七에 해당되며, 『産難論』, 『揚子建十産論』, 『催生方論』, 『交骨不開産門不閉方論』, 『郭稽中産難方論』, 『産難子死腹中方論』, 『産難生死訣』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交骨不開産門不閉方論』은 《婦人大全良方》에는 없는 내용으로 薛己가 보입하였다.



『産難門』은 난산의 예방을 위한 원칙, 난산의 유형, 난산에 대한 처치법 및 맥진을 통한 예후 판단법, 사망한 태아의 배출 등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모두 11개의 醫案이 수록되어 있다. 難産과 관련된 醫案으로서 交骨不開産門不開方論第四에는 “地官李孟卿, 娶三十五歲女爲繼室, 妊娠慮其難産, 索加味芎歸湯四劑備用, 果産門不開, 止服一劑, 頓然分娩.(지관 이맹경이 35세 된 여자에게 장가들어 후실로 삼았는데, 임신을 하고서는 難産할까 염려하여 加味芎歸湯을 골라 4제를 준비하여 두었다. 과연 産門이 열리지 않아 단지 1제를 복용하였는데 즉시 분만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 醫案은 産道狹窄으로 인한 難産을 加味芎歸湯으로 치료한 증례이다.

#### VII. 『産後門』의 내용과 주요 醫案

『産後門』은 卷十八에서 卷二十三까지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2개의 産後關聯 醫案을 수록하고 있다. 卷十八에서는 산후 조리에 대한 총론적 내용의 언급과 함께 産後通用方을 설명하고 있으며, 胞衣不出, 産後血暈, 産後顛狂, 産後狂言謔語, 産後不語에 대한 方論을 실고 있다. 卷十九에서는 乍見鬼神, 心神驚悸, 中風心驚, 中風恍惚, 虛極生風, 虛汗不止, 冒悶汗出, 汗多變瘧, 口噤腰背反張, 中風, 四肢筋攣, 瘰癧, 脚氣 등에 대한 方論을 수록하고 있다. 卷二十에서는 遍身疼痛, 腰痛, 惡露不絕, 惡露不下, 惡露上攻心痛, 惡露腹痛, 兒枕腹痛, 小腹痛, 寒疝腹痛, 兩脅脹痛, 積聚癥塊, 血瘕, 淤血奔心煩悶, 虛煩發熱 등에 대한 方論을 수록하고 있다. 卷二十一에

서는 口乾痞悶, 血渴, 乍寒乍熱, 蓐勞, 虛羸, 風虛冷勞, 腹脹嘔吐, 嘔逆不食, 霍亂 등에 대한 方論을 수록하고 있다. 卷二十二에서는 寒熱, 頭痛, 咳嗽, 喉中氣急促喘, 口鼻黑鼻衄, 咳噎, 血崩, 月水不調, 月水不通, 四肢浮腫, 腹痛瀉利, 赤白痢 등에 대한 方論을 수록하고 있다. 卷二十三에서는 痢疾作渴, 大便秘澀, 大小便不通, 遺糞, 諸淋, 小便頻數, 小便不禁, 小便出血, 陰脫玉門不閉, 陰蝕疔, 乳少或止, 乳出, 吹乳, 妬乳 등에 대한 方論을 다루고 있다.

수재된 醫案들은 《婦人大全良方》과 달리 평범한 부인들의 진료기록이 대부분이며, 역시 회고적 醫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醫案에 나타난 주된 病機認識은 産後의 肝脾氣血虛弱과 정신적 자극에 의한 肝脾損傷, 腎陽虛, 과로에 의한 손상 등에 주목하여 補氣血과 疎肝 및 溫陽을 위주로 한 治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頻用된 처방은 十全大補湯과 八珍湯이며, 加味逍遙散·加味歸脾湯·補中益氣湯 등이 많이 활용되었고, 六君子湯, 八味地黃丸, 參附湯, 當歸六黃湯, 獨活寄生湯 등이 활용되고 있다.

산후의 遍身疼痛과 관련된 의안으로서 産後遍身疼痛方論第一에서는 “一産婦遍身頭項作痛, 惡寒拘急, 脈浮緊, 此風寒之症也. 用五積散一劑, 汗出而愈. 但倦怠發熱, 此邪氣去而眞氣虛也, 用八珍湯調補而痊.(어떤 산모가 온몸과 머리와 목이 아프고 오한이 들며 몸이 뻣뻣하며 맥이 뜨고 시위와 같이 긴장되었는데, 이것은 風寒의 증상이었다. 그래서 五積散 한 제를 썼더니 땀이 나고 나았다. 그런데 단지 몸이 피곤하고 열이 낮

는데, 이것은 邪氣가 없어졌지만 眞氣가 虛한 것이어서 八珍湯으로 조리하고 補하였더니 나왔다.)"고 하고 있다. 이 醫案은 風寒型의 產後遍身疼痛을 五積散으로 치료하고 八珍湯으로 조리한 증례이다.

산후의 惡露와 관련된 의안으로서 產後惡露不絕方論第三에서는 “一產婦惡露淋瀝, 體倦面黃, 食少惡寒, 晝夜不寐, 驚悸汗出, 此脾經虛熱, 用加味歸脾湯而痊. 後因怒脇脹, 作嘔少食, 用六君子湯加柴胡治之而痊.(어떤 산모가 惡露가 조금씩 그치지 않고 새어나오고 몸이 피곤하며 얼굴이 누렇게 음식을 조금 먹고 오한이 들며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땀이 났는데, 이것은 脾經의 虛熱이어서 加味歸脾湯을 썼더니 나왔다. 나중에 화를 낸 탓에 구역질을 하고 음식을 조금 먹어서 六君子湯에 柴胡를 加味하여 치료하였더니 나왔다.)"고 하고 있다. 이 醫案은 산후에 少量의 惡露가 계속되면서 不眠, 驚悸 및 發汗이 있는 것을 脾經의 虛熱로 보고 加味歸脾湯으로 치료한 것이다.

產後浮腫과 관련된 의안으로서 產後四肢浮腫方論第十에서는 “一產婦飲食少思, 服消導之劑, 四肢浮腫. 余謂中氣不足, 朝用補中益氣湯, 夕用六君子湯而愈. 後因怒腹脹, 誤服沈香化氣丸, 泄瀉不止, 飲食不進, 小便不利, 肚腹四肢浮腫, 用金匱加減腎氣丸而愈.(어떤 산모가 식욕이 적어 消導시키는 약을 복용하였더니 四肢가 부었다. 내가 中氣가 不足한 것이라 하고 아침에는 補中益氣湯을 쓰고 저녁에는 六君子湯을 써서 나왔다. 나중에 화를 낸 탓에 배가 불러 沈香化氣丸을 잘못 써서 설사가 멎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으며 소변이 잘나오지 않고 복부와 사지가 부어 金匱加減腎氣丸을 썼더니 나왔다.)"고 하고 있다. 이 醫案역시 中氣를 보강하여 산후부종을 치료하는 溫補 중심의 임상관을 볼 수 있다. 실제적인 利水가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적인 利水劑보다는 補腎의 효능이 있는 腎氣丸類를 쓰고 있다.

골반저의 지지 장애로 인한 요실금과 생식기 이완과 관련된 의안으로서 產後小便不禁方論第七에서는 “一產婦小便不禁, 二年不愈. 面色或青赤, 或黃白, 淸肝脾氣血虛熱, 用加味逍遙散爲主, 漸愈, 佐以六味丸而痊. 後因怒, 小便自遺, 大便不實, 左目頓緊, 面色頓赤, 仍用前散, 佐以六君子湯, 以淸肝火·生肝血·培脾土而瘳.(어떤 산모가 소변을 참지 못하였는데 2년 동안 낫지 않았다. 얼굴색이 간혹 퍼렇게 되면서 붉거나 혹은 누르면서 희었는데, 이것은 肝과 脾의 氣와 血이 虛하고 열이 있는 것이어서 加味逍遙散을 위주로 치료하였더니 차츰 나았고 六味地黃丸으로 보좌하였더니 완치되었다. 나중에 화를 내어 소변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대변이 무르게 되며 왼쪽 눈이 갑자기 오므라들고 얼굴색이 돌연 붉어져서 앞의 散劑를 쓰면서 六君子湯으로 보좌하면서 肝火를 맑게 하고 肝血을 생성시키며 脾土를 복돋워서 나왔다.)"고 하고 있다. 이 醫案은 만성적인 산후 요실금을 加味逍遙散으로 肝과 脾를 다스리고 六味地黃丸으로 腎을 다스려 치료한 증례이다.

또한 產後陰脫玉文不閉方論第九에서는 “一產婦玉門不閉, 發熱惡寒, 用十全大補加五味子, 數劑而寒熱退; 用補中益氣加五味子, 數劑而玉門閉.(어떤 산모의 질

입구가 닫히지 않고 열이 나고 오한이 들어 十全大補湯에 五味子を 加味하여 몇 제 썼더니 오한과 발열이 없어졌고, 補中益氣湯에 五味子を 加味하여 몇 제 썼더니 옥문이 닫혔다.)”고 하고 있다.

산후의 乳汁分泌와 관련된 의안으로서 產後乳少或止方論第十一에서는 “一產婦因乳少服藥通之，致乳房腫脹，發熱作渴。余謂血氣虛，以玉露散補之而愈。(어떤 산모가 젖이 적게 나와 약을 먹어 젖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방이 붓고 열이 나고 갈증이 나게 되었다. 내가 “血과 氣가 虛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玉露散으로 補하였더니 나왔다.)”고 하고 있다. 이 醫案은 유즙 분비 부족으로 通乳藥을 쓴 후 乳房의 腫脹과 갈증이 있는 것을 氣血虛弱으로 보고 玉露散으로 치료한 증례이다.

#### VIII. 『瘡瘍門』의 내용과 주요 醫案

卷二十四 補遺篇은 『瘡瘍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瘡瘍門』은 婦人繭脣方論, 婦人耳疔痛方論, 婦人瘰癧方論, 婦人結核方論, 婦人流注方論, 婦人血風瘡論, 婦人赤白游風方論, 婦人疔疔方論, 婦人鶴膝風方論, 婦人下注膝瘡方論, 婦人足跟瘡腫方論, 婦人肺癰方論, 婦人腸癰方論, 乳癰乳岩方論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입술에 생긴 종괴성 질환(繭脣方論), 경항부 입과결의 종괴성 질환(瘰癧方論), 슬관절의 염증성 질환(鶴膝風方論), 장옹(腸癰方論), 유방의 염증과 종양성 질환(乳癰乳岩方論) 등에 대한 방론과 함께 총 132개의 상당히 많은 醫案이 수록되어 있다.

『瘡瘍門』은 《婦人大全良方》과 편

제가 가장 다른 보충부분이다. 원래 薛己는 瘍醫로 명성이 높고 이어 內科와 婦人科 등으로 이론과 임상적 축적이 이루어진 醫家이다. 薛己는 《校注婦人良方》에서 여성 질환 전반을 다루고자 하였을 것이며, 그 자신이 瘍醫로서 瘡瘍에 정통하였기에 《婦人大全良方》에서 미흡한 부분이었던 瘡瘍門을 補遺하였을 것이다. 瘡瘍에 대한 薛己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正氣를 補하여 치료하는 補托法에 있다.

유선염 및 유방암과 관련된 醫案으로서 乳癰乳岩方論第十四에서는 “一婦人內熱脇脹，兩乳不時作痛，口內不時辛辣，若臥而起急，則臍下牽痛，此帶脈爲患也。用小柴胡加青皮·黃連·山梔，二劑而瘥。(어떤 부인이 내열이 있고 옆구리가 부르며 양쪽 유방이 수시로 아프고 입안이 수시로 맵게 느껴지며 만약 누웠다 갑자기 일어나면 배꼽 밑이 당기면서 아팠는데, 이것은 帶脈에 병이 든 것이었다. 小柴胡湯에 青皮·黃連·山梔子를 加味하여 2제를 썼더니 나왔다.)”고 하고 있다.

또한 乳癰乳岩方論第十四에서는 “一婦人久鬱，右乳內腫硬，此肝經血症也。用八珍加遠志·貝母·柴胡·青皮，及隔蒜灸，兼神效瓜蒌散，兩月餘而瘥。(어떤 부인이 오랫동안 울체되어 오른쪽 유방 안이 붓고 단단해졌는데, 이것은 肝經의 血에 이상이 생긴 병증이었다. 八珍湯에 遠志·貝母·柴胡·青皮를 加味한 처방을 쓰고 마늘을 가늘게 잘라 깔고 그 위에 다 뜸을 뜨는 방법과 함께 神效瓜蒌散을 썼더니 2개월여 만에 나왔다.)”고 하고 있다. 이 밖에 “一婦人，乳內結核年餘，哺熱少食。余謂此血氣不足，欲用益氣

養榮湯. 彼反服行氣之劑, 潰出清膿而歿. 又一婦乳內結核如栗, 亦服前藥, 大如覆碗, 堅硬如石, 出血水而歿.(부인이 유방 안에 덩어리가 맺힌 지가 1년여가 되어 해질 녘에 열이 나고 음식을 적게 먹었다. 내가 이것은 血과 氣가 부족한 것이라 하고 益氣養榮湯을 쓰고자 하였다. 그가 도리어 氣를 돌리는 약을 복용하고는 혈어서 묽은 고름이 나오면서 죽었다. 또 어떤 부인이 유방 안에 밤알과 같은 덩어리가 맺혀 역시 앞의 약을 복용하였는데, 크기는 사발을 엮어놓은 것만 하였고 돌처럼 단단하였는데, 혈성 분비물이 나오고 죽었다.)"고 하고 있는데, 문의로 보아서는 유방암에 대한 醫案으로 보인다.

#### IV. 考 察

《校注婦人良方》은 東垣과 錢乙에게서 지대한 이론적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丹溪의 이론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은 明代 薛己의 《婦人大全良方》校注本이다. 薛己는 서기 1488년경에 태어나 1558년경에 사망하였으며, 字는 新甫이고 號는 立齋이다. 지금의 江蘇省 蘇州에 해당되는 吳縣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李東垣과 錢乙을 私淑했는데, 東垣의 補脾理論과 錢乙의 益腎理論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陽虛發熱에는 補中益氣의 方法을 써서 升舉清陽해야 하고, 陰虛發熱에는 六味地黃湯의 方法을 써서 培養陰血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補脾補腎이 비록 陰陽氣血의 區別이 있지만, 실상 脾胃의 不足에 의한 것이 아주 많다고 하였다. 이는 脾腎이 모두 重要하지만, 脾胃가 主가 된다고 한 것이어서 東垣의 이론을 爲主로 하면서 丹溪의

이론을 보완적으로 수용하여 통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臨床 諸科와 本草學에 뛰어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瘍科에 정통하였다. 後代에 趙獻可, 張介賓, 李中梓 등이 薛己의 說을 따라 溫補益陽之劑를 善用하였는데, 이들을 後世에서 '溫補派'라 稱하였다<sup>3,4)</sup>. 그러므로 薛己는 溫補派를 發起한 醫家라 할 수 있다. 이들 溫補派 醫家 가운데서 특히 張介賓<sup>1)</sup>은 《景岳全書·婦人規》에서 薛己의 이론과 함께 《丹溪心法》 등에 나타난 朱震亨의 이론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校注婦人良方》은 薛己가 서기 1529년에 陳自明의 《婦人大全良方》을 校注하고 재편한 주석본이다. 이것은 調經·衆疾·求嗣·胎教·候胎·妊娠疾病·坐月·産難·産後·瘡瘍 등 총 10門, 24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調經門에서 43개, 衆疾門에서 209개, 求嗣門에서 7개, 妊娠疾病門에서 52개, 産難門에서 11개, 産後門에서 92개, 瘡瘍門에서 132개 등 총 546개 醫案이 수재되어 있다.

이 책의 醫案들은 薛己가 附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이 薛己의 임상경험을 기록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대상은 평범한 부인, 관료의 부인, 薛己의 부인 및 薛己의 모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婦人大全良方》에 비해 평범한 부인이라 할 수 있는 '一婦人'과 '一妊婦', '一女子', '一孀婦'로 시작하는 醫案만도 각각 353회, 45회, 6회 및 5회에 이르며, 전체의 75%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宋代에서 明代로 넘어가면서 여성에 대한 한의학 진료의 보편화가 이루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미망인뿐만 아니라 退出된 宮女, 女僧 등에 대한 醫案의 내용을 보면, 여성의 사회·경제적 신분과 위치에 따른 심신장애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醫案에서 진료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을 추론할 수 있는데, '松江'은 현재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당시의 '松江府'로 오늘날의 上海에 해당되므로 醫案의 주된 무대는 薛己의 고향인 蘇州와 上海 일대로 볼 수 있겠다.

한편 이들 醫案 중에는 治療 年代가 표시된 것이 5개 있다. 이들 醫案 중 가장 연대가 앞선 것은 서기 1541년 辛丑年의 것이다. 나머지 醫案들도 서기 1542년 壬寅年에서 1545년 乙巳年에 진단이 시작된 醫案까지 50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시기의 醫案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薛己의 醫案이라는 전제하에 薛己의 生沒 年代를 서기 1488년 경에 태어나 1558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그 사이의 간지를 따져 본 것이다. 그런데 일부 官職名이 확인되는 醫案 중에는 宋代에 쓰인 官職名<sup>12)</sup>이 언급된 것도 있어서 과연 모두 薛己의 醫案일까 하는 의구심이 남는 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모두 薛己의 醫案이라 한다면 상당부분의 醫案이 41세에 《校注婦人良方》을 최초 편집한 이후에 임상경험의 축적과정과 교정 작업 및 판본의 변화를 거치면서 1547년(嘉正 26년, 61세)에 출간될 때까지 補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V. 結 論

韓醫學의 醫案은 구체적 임상 경과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보다는 임상에서 일어난 思惟에 따라 理·法·方·藥의 反映形式을 담는 것에 치중하였다. 이러한 醫案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번역은 선현의 임상 성과를 계승하여 현대적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이 될 수 있다. 《校注婦人良方》은 여성 질환과 관련된 醫案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수재하고 있는 서적이다.

《校注婦人良方》은 원래 南宋代의 陳子明이 지은 《婦人大全良方》을 서기 1529년에 薛己가 校注하고 상당 부분의 처방을 정리한 후 자신의 醫案을 附入하여 엮은 책으로 1547년(嘉正 26년, 61세)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인과 전문 서적이다. 調經·衆疾·求嗣·胎教·候胎·妊娠·坐月·産難·産後·瘡瘍 등 10門, 24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調經門에서 43개, 衆疾門에서 209개, 求嗣門에서 7개, 妊娠疾病門에서 52개, 産難門에서 11개, 産後門에서 92개, 瘡瘍門에서 132개 등 총 546개 醫案이 수재되어 있다.

이들 醫案은 모두 회고적 형태의 醫案으로 薛己가 附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초의 저작 당시에 한꺼번에 附入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진료 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 醫案을 통해 추론하면 서기 1541년 辛丑년부터 肺癰으로 사망한 증례를 담은 기록에서 나타난 1546년 丙午년까지 6년에 걸친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교주본의 최초 성립 후 보완과정에서 상당부분이 부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醫案에 나타난 진료의 대상은 평범한 부인, 관료의 부인, 薛己의 부인 및 薛己의 모친 등으로 《婦人大全良方》에 비해 중산층으로 진료 영역이 확장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薛己의 醫案에 나타난 醫學理論의 특징은 病證에 따른 初步의 辨證施治를 다룬 醫論과 이에 따른 유효처방의 나열로 이루어진 《婦人大全良方》의 기술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當審其所因而調治'라 하여 病因·病機에 따른 辨證論治의 정신이 뚜렷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情緒的 要因에 의한 發病과 脾腎의 손상을 중시하는 것에서도 특징이 있었다. 치료에 있어서는 疏肝과 기타 發病要因의 제거는 물론 補脾氣와 益腎을 통한 調補를 통해 최종적인 건강 상태로의 회복을 꾀하는 根治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었다.

《校注婦人良方》의 이러한 醫案들은 心神統合的 全一診療 형식으로 心身產婦人科 영역 및 각종 만성적 경과를 나타내는 여성의 질환에 대한 임상에 유의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투 고 일 : 2006년 04월 26일
- 심 사 일 : 2006년 05월 01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5월 09일

## 參考文獻

1. 이태균, 김동일. 한방부인과학강의록. 제 4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학교실 2000;92.
2. 黃煌. 醫案助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1;1~2.
3. 洪元植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136~287.
4. 馬大正. 中國婦產科發展史. 溫州; 山西科學教育出版社 1991;151~154.

5. 陳子明原著, 薛己校注, 許潤三等釋. 《校注婦人大全良方》注釋. 江西; 江西人民出版社. 1983.
6. 陳自明原著, 薛己校注. 四庫全書《薛氏醫案》中《校注婦人良方》. 中國醫學大系31. 서울; 圖書出版鼎談影印. 1986.
7. 陳子明原著, 薛己校注, 卞廷煥譯. 完譯校註婦人良方. 大邱; 學林院 1987.
8. 吳洙錫. 《傳青主女科》에 관한 연구-수재된 처방과 이의 임상운용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5~7.
9. 陳自明 撰. 婦人大全良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10. 褚澄著, 趙國華校釋. 褚氏遺書校釋. 河南省; 河南科技出版社. 1986.
11. 張介賓著, 李泰均譯. 景岳全書 婦人規. 서울; 法人文化社. 1999.
12. 呂宗力主編. 中國歷代官制大辭典. 北京; 北京出版社 1994.